

기고

광주비엔날레서 상상의 기후대(氣候帶)를 만나세요



채영선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엄마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이 무척 안타까웠고 슬픈 사연이 많아 눈물 흘리며 읽었다. 그 내용은 1882년경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고 있는 마르코의 이야기인데 집안이 가난하여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일을 하러 떠나 소식을 끊기자 주인공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멀고 먼 아르헨티나로 가서 친신안과 끝에 엄마를 만나 이탈리아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이때 필자가 이야기 굵이 굵이마다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느낀 것은 다른 어린이들과 다른 바가 없었지만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60년대 중반에 어린 필자가 알기에 “이탈리아도 잘 사는 나라인데 지구상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얼마나

잘 살기에 이탈리아 사람이 가정부를 하러 떠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대학을 가고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다. 아르헨티나는 사르트르가 20세기 최고의 성인이라 불렀던 제 게바라의 나라였고 한 시대를 풍미한 해방신학의 발상지였으며 20세기에 발생한 새로운 사상 스무 개 중 하나를 차지한 페론이즘의 나라였다. 그리고 별로 잘 살지 못하며 새로운 희망도 찾지 힘든 나라였다. 그 질살던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경제발전 정책을 잘못 계획하고 시행한 탓도 있지만 문제는 불안정한 정치체제 때문이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교통의식을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차를 운행할 때 사람이 없으면 빨간 불의 교통신호일지라도 구애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멈춘다고 한다. 여기에서 프랑스보다는 독일의 교통질서가 훨씬 예측 가능하며 이로부터 독일은 사회질서가 상호신뢰하기 좋도록 갖추어 놓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력은 유럽을 가보지 않고 뉴스를 통해서 접해 봐도 EU내에서 매우 막강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와 사회부문과 관련이 있다.

어찌 경제발전뿐이겠는가. 우리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존재와 운용의 이치를 알 수 없다. 이를 외적 초월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남을 포용하는 것을 내적 초월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포용으로써 어느 정도 내적 초월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은 내적 초월을 위해서 문화적이어야 하며 예술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사회의 정체성은 정치나 경제보다는 이를 반영한 문화로 규정 지워지고 예술은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용을 위해서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의 르네상스기 예술로써 완성되고 후세에 전달되었으며 일본도 근대화 과정에서 예술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定義)해가며 서구화를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엔날레는 국제규모의 실험적 현대미술전이다. 그러한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열리기 시작한 지 21년이 되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실험적 예술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담론을 제공해 왔다. 논리가 빠르게 전개되는 면이 있지만 이는 결국 다양성을 포용하는 내적 초월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2016광주비엔날레 주제는 ‘상상의 세계’ (the imaginary world)라는 개념인 ‘제8기후대’(八氣候帶)이다. 12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소흐라바르디(Sohravardi)에 의해 착안되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코르뱅(Henri Corbin)에 의해 다듬어졌는데, 지구상에 없는 상상의 기후대라 할 수 있다. 예술로 펼쳐내는 상상의 세계는 다양성과 공생의 세계에서 현실을 초월하여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9월 2일 베일을 벗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이러한 인류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252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마르코가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엄마를 만나 돌아오듯이 우리 광주 시민은 비엔날레를 통해 다른 문화와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담론에 참여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미래를 일구는 사람, 내적 초월을 이룩하는 것은 필자만의 바람일까.

법조칼럼



설승원  
광주지법 정충지원 판사

“먹고살기 너무 힘들습니다. 벌금을 좀 깎아주세요.”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모의 갑작스런 지출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깎아줘야 할까요? 사실 판사도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직접 눈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구구절절 하소연하면 마음이 쓰입니다. 대개 벌금을

소득과 벌금

선고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 탓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켜서 고통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때문에 벌금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깎아주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다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말처럼 피고인의 사정이 정말로 어렵다면 말이지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판사 입장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피고인의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개의 경우 형편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벌금을 깎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연민은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말이지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

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고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구별하는 건 어떨까요? 작년부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장흥과 강진이라는 농어촌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서울이나 광주와 같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시 지역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각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이 1965만원으로 1위, 서울이 1945만원으로 2위 그리고 부산이 1688만원으로 3위인데 반해, 전남은 1415만원입니다. 결국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울산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전남에 사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형벌로 느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지역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다소 기계적으로 벌금액이 정해지는 읍주운전사의 경우를 보면,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이 서

울과 지방, 도시와 시골 중 어느 곳에 사는지에 따라 벌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평균 소득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가 실재로는 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부당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소득이라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피고인 개인의 사정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거비를 비롯하여 여타 불가를 감안했을 때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전남에 사는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6개월 남짓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근무하면서 어느 쪽이 옳은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여기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고민으로 인해 정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오답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고

인구절벽 위기, 어찌하오리까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작은 딸과 산책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들 딸 낳아 키우는 재미와 보람만큼 큰 게 없더라. 육아가 힘들지 하지만, 그러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나 너무 언니처럼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직장 잡고 얼른 결혼하면 좋겠다.”

필자는 직장여성으로서 서른 후반에 늦둥이로 작은 딸을 낳아 애지중지 키워왔다. 항상 같이 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빨리 좋은 짝을 맺어주고 출가분해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어려서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엄마의 모습이 참 힘들게 보였을까? 작은 딸은 그러겠다고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다.

‘3포 시대’를 이미 지나 이젠 6포 시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까지 포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광주 여성과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며 출산정책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원인이 취업난 주거난에 따른 만혼·비혼 심화 그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이 '03년 남 30.1세, 여 27.3세에서 '14년에는 남 32.4세, 여 29.8세로 높아졌다. 출산을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 등을 보면 사회구조와 인식·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2014년 1.21명)까지 올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 출산정책이 보육 중심 등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일차,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 혁신과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으로 까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도 제3차 기본계획 방향에 맞추어 4개 분야 130개 과제를 담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출산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가 인구절벽을 막고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청년 취·창업에 힘쓰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환경요인 등으로 늘고 있는 불임,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영유아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청사 내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유지하여 정부합동행사에서 우수사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국 최초 시행한 손자녀돌보미와 광중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로 한부모, 청소년부모,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 전환해서 직장맘들의 고통을 윈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출산한 번 동차센터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3.0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만족도 높은 출산정책으로 광주시는 올해 인구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큰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 정착도 중요하다. 이에 25개 기관단체가 참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함께!’라는 구호 아래 돌이 하는 작은 결혼식, 남편의 가사육아 참여, 자녀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음달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 확산과 대정부 출산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어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다. 취업과 주거 걱정 없이,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가 세심한 배려와 돌봄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선6기가 지향하는 진정한 광주다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돌만날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운동을 범국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값진 경험이 있다. 출산율도 국가와 지방, 시민사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이가 축복이며 희망’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社說

더민주 추미애호 기대와 함께 걱정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8·27전당대회 결과 예상대로 ‘친문’(친 문재인) 지도부가 구축됐다. 친문 진영의 지원 사격을 받은 5선의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새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이다. 최고위원 역시 같은 계파 인사들이 독식했다.

경선 기간 내내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대표는 54%의 득표로 이종걸(24%), 김상곤(22%) 후보를 따돌렸다. 추 대표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을 표방해 여야 관계에도 격랑을 예고했다.

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 전 대표 천거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 몫의 양향자, 청년 부문 김병관을 비롯한 김영주·전해철·심기준·최인호 권역별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 전 대표 천거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 몫의 양향자, 청년 부문 김병관을 비롯한 김영주·전해철·심기준·최인호 권역별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 전 대표 천거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 몫의 양향자, 청년 부문 김병관을 비롯한 김영주·전해철·심기준·최인호 권역별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 거도에서 당 후보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교

두보를 마련했다. 추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옹립’을 시사했고, 영입 인사들까지 지도부에 입성해 탄탄대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힘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문 전 대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노·비노’ 갈등으로 결국 야권이 갈라졌듯이 계파색이 짙어지면 새로운 문화가 견뎌진다. 새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로 치달을수록 당내 다른 주장을 중심으로 원심력은 강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내 ‘친박’과 더민주의 ‘친문’을 제외하고 헤쳐 모이는 ‘제3지대론’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더민주 지도부는 무엇보다 특정 계파 전횡과, 선명 야당을 내세운 정쟁 유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당내 권력에 취해 대권을 거머쥘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거나 정치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위안부 피해자 상처만 덧대는가

정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1억 원, 사망자에게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속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차등을 두어 억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외교부는 지난주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한화 약 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회해·치유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료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김월옥(89)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자식, 동생, 친척이 끌려가서 돌아왔다면 그 위로금 몇 푼

받고 용서가 되겠느냐”면서 “위로금이 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김 할머니는 또 “돈 준다는데 그냥 받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금을 개인별로 용처를 정해 분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도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지원된 자금이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일량한 몇 푼의 돈을 쓸새운 일본 정부의 뻔뻔한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어찌 이렇게 피해자들의 가슴을 잔인하게 후벼 파는 것인지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온다.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합의를 서둘렀다. 그러나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나 세대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無等鼓

올림픽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다. 모두가 잘 싸웠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동메달을 딴 선수도, 메달을 못 딴 선수도 최선을 다했다. 올림픽 때마다 TV를 통해 봐 온 광경이 하나 있다. 메달을 받았어도 실의에 빠져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다. 특히 시상식에서 동메달리스트는 기뻐하는 반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쓸쓸해 하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됐다.

이 같은 은메달리스트의 심리를 ‘코넬대학교 심리학교실’에서 연구한 적이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했다. 표정에 나타난 기쁨 정도의 순서는 금·은·동 이 아니라 금·동·은이었다. 은메달 선수는 ‘조금만 잘했다면 금을 땀을 댄데’라는 아쉬움 탓에 기쁨보다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반면 동메달 선수는 ‘까닥했으면 노메달이 될 뻔 했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환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이나 사고의 틀(프레임, frame)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은 이를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했다.

은메달의 법칙

이처럼 ‘은메달 선수보다 동메달 선수가 더 기뻐한다’는 연구 결과는 1999년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피크(Peak, 절정) 엔드(End, 마지막) 법칙’으로 설명됐다. 인간의 기억은 주로 사건의 ‘절정’과 ‘마지막’을 기억하는데, 마지막 기억이 좋으면 그 기억이 비교적 오래간다는 것. 은메달은 마지막에 패배한 아쉬움이 크지만 동메달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 좋은 기억 때문에 행복감이 크다.

스포츠에서 2등(은메달)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최출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양정모 선수다. 그럼 리스트들의 표정을 분석했다. 표정에 나타난 기쁨 정도의 순서는 금·은·동 이 아니라 금·동·은이었다. 은메달 선수는 ‘조금만 잘했다면 금을 땀을 댄데’라는 아쉬움 탓에 기쁨보다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반면 동메달 선수는 ‘까닥했으면 노메달이 될 뻔 했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환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이나 사고의 틀(프레임, frame)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은 이를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했다.

이처럼 ‘은메달 선수보다 동메달 선수가 더 기뻐한다’는 연구 결과는 1999년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피크(Peak, 절정) 엔드(End, 마지막) 법칙’으로 설명됐다. 인간의 기억은 주로 사건의 ‘절정’과 ‘마지막’을 기억하는데, 마지막 기억이 좋으면 그 기억이 비교적 오래간다는 것. 은메달은 마지막에 패배한 아쉬움이 크지만 동메달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 좋은 기억 때문에 행복감이 크다.  
스포츠에서 2등(은메달)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최출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양정모 선수다. 그럼 리스트들의 표정을 분석했다. 표정에 나타난 기쁨 정도의 순서는 금·은·동 이 아니라 금·동·은이었다. 은메달 선수는 ‘조금만 잘했다면 금을 땀을 댄데’라는 아쉬움 탓에 기쁨보다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반면 동메달 선수는 ‘까닥했으면 노메달이 될 뻔 했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환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이나 사고의 틀(프레임, frame)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은 이를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평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